

# 연수회 호황, 르네상스인가 춘추전국인가

연수회는 주최자에 따라 학회에서 실시하는 것, 대학에서 실시하는 것, 회사에서 주관하는 것, 개인에 의해 실시되는 것 등으로 나뉘게 되는데 치의신보에 게재된 광고의 대부분이 연수회로 채워져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일반의과나 한의과에 비해서 치과 쪽에 연수회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연수회 호황에 따른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본다. <편집자>

취재/안정미 기자



연수회 호황

치의신보 광고, 대부분이 연수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치의신보를 몇 년간만 훑어보면 연수회의 흥망성쇠(?)를 알 수 있다. 어떤 것은 없어져서 다른 연수회로 흡수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계속 되고 있으며 어떤 것은 아예 옛 추억으로 사라져버린 것도 있다. 물론 새로 생긴 연수회도 쉽게 접할 수 있다.

70년대만 해도 연수회가 전무한 상태여서 새로운 지견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학회에 의존해야만 했다.

이후 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학회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선진 임상을 접한 해외파의 국내유입에 의해 새로운 임상이 소개되면서 연수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80년대 중반 이후 치과의사 수의 급증과 보험 수가 문제 등 치과의사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교정스터디 붐이 일기 시작했고 이후 연수회의 계속 실시로 지금의 호황기에 접어들게 됐다.

이런 치과계의 연수회 호황은 다른 의료집단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서울시 서초구 미치과 고석훈 원장은 “치과계의 연수회 호황이 치과기공사에게까지 옮겨가 치과기공사도 졸업하고 기공소를 개업한 이후에도 경쟁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료인인 메디컬이나 한의사의 경우, 치과의사들이 개업이후에도 이토록 공부하는 것에 대해 신기해 할 정도입니다.”고 말한다.

몇년전의 치의신보와 현재의 치의신보를 비교해보면

연수회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개인 연수회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연수회의 내용이 얼마나 다양해졌는지, 그리고 평생프로그램과 같은 학교의 참여 및 경영에 대한 연수회가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수회의 종류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과 각종 과별 연수회, 학회에서 실시하는 연수회, 회사에서 실시하는 연수회, 개인이 주도하는 연수회, 지부에서 하는 연수회로 나누어질 수 있다. 연수회가

많은 단체에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치과계가 바야흐로 르네

상스 시대를 맞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질적 검증이 어려운 연수회의 난립으로 이는 마치 춘추전국시대와 같다고 비유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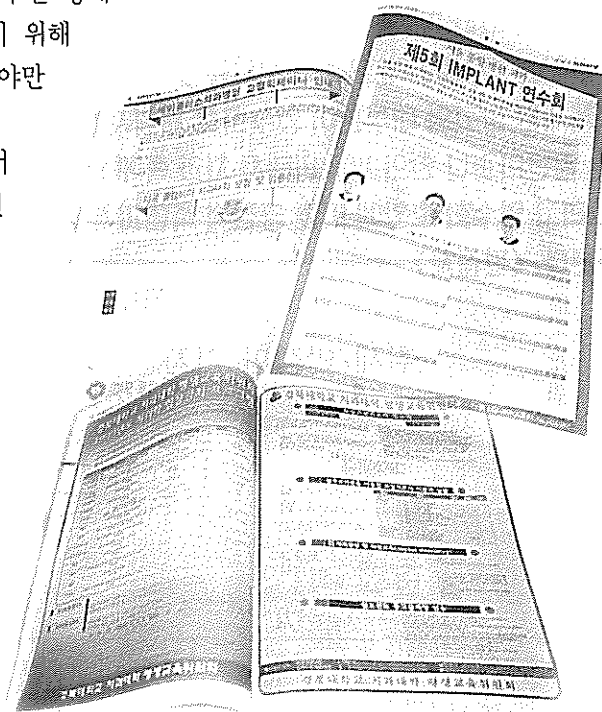
왜 치과계에 연수회가 많은가?

치과 쪽이 다른 의료분야에 비해 연수회가 많은 이유는 단선적인 이유로 설명할 수는 없는 현상이며 복합적으로 다양한 현상들이 연결돼 이처럼 연수회가 호황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수회가 범람(?)하는 요인을 몇가지 살펴보면 우선 대학 교육만으로 개원후 임상에 적용하는데

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대학 기능의 부실이 아니라 제도상의 잘못으로 이해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대학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본적 학문내용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교정이나 임프란트 등에 대한 실질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치의학은 계속 발달하는데 치과대학의 학부과정에서는 보편적으로 공인된 학설이나 기본적 술식



치의신보를 살펴보면 광고중 대부분이 연수회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과거와 비교해 연수회의 내용이 상당히 다양해졌고 주최자도 많아졌다.

을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모든 내용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또한 현실이다.

치의학의 학문적 특성은 이러한 연수회의 붐을 설명해줄 수 있다. 치의학에는 재료의 머티리얼 사이언스적 측면과 임상적 테크놀러지적 측면이 다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산업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재료가 소개되고 발전되며 이와 함께 다양한 임상술식이 소개된다.

새로운 재료의 등장은 의료인의 임상행위를 좀더 쉽고 간편한 술식으로 가능하게끔 유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어 재료의 소개, 새로운 시술법 등으로 앞으로도 연수회가 계속될 것이다.

지금 개원가가 다분히 호황기를 맞는 것도 한 요인이다. 연수회는 개원가가 불황기인지 호황기인지를 판단하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한다.

과거 일본의 경우 70년대만 하더라도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연수회가 개최됐지만 개원가가 어려운 현실에서는 연수회가 과거처럼 많이 열리지 않고 있으며 선진치의학의 주도자격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continuing education으로 호황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일반 환자들은 치과의사는 만능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직접 시술하지는 않더라도 환자를 가이드해 주기 위해서라도 연수회를 찾게 되는 경우도 있다.

고대 구로병원 치과 신상완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연수회에 참석하는 이들 중 70-80%는 직접 임상시술에 참여하고자 하며 20-30%는 비록 직접 시술하지는 않지만 환자의 문의에 대해 답변을 해준다는지 환자를 적절하게 가이드해 주기 위해서다.

## 연수회 중독증, 세미나 닥터

이렇게 연수회가 많다보니 치과의사 사이에서 새로운 신조어(?)까지 퍼지게 됐다. 이른바 '연수회 중독증'과 '세미나 닥터'.

연수회 중독증은 말 그대로 연수회를 듣지 않으면 스스로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뭔가 새로운 것을 들으면 기쁨을 느끼고 다른 연수회에서는 무엇을 할까, 너무 궁금하게 여긴다. 그리고



개원 이후에도 공부하는 모습은 타의료계와 다른 치과계의 독특한 현상이다. 이런 기현상은 환자들에게 존경심을 불러 일으키고 임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한다.

이 연수회 저 연수회 기웃거린다.

물론 이렇게 연수회를 많이 찾아다님으로써 공부를 하고 연수회를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게 되면 노후가 생기게 된다. 모방의 모방을 통해 새로운 연수회를 창조하는 치과의사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혼돈을 빚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혼돈을 빚게 되면 세미나 닥터로 그치게 된다. 세미나 닥터는 연수회는 많이 다니는데 단지 연수회를 위한 연수회로만 그쳐 실제 임상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경우다.

서울시 서초구 고운이치과 유영준 원장은 산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임상에 적용하는 테크닉이 아니라 환자에게 오랫동안 실천할 수 있는 임상을 배워야 가치 있다고 말한다. 백가지 아는 것보다 한가지 실천하는 사람이 연수회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다. 결국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임상 수준의 향상, 질 높은 진료 가능

연수회가 시작되고 널리 보편화된 이후 연수회가 한국의 임상 치의학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한 것은 사실이다. 대학에서 하지 못하거나 안하는 부분에 대해 빈 자리를 채워줬고 오히려 대학도 자극을 받아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나 학회에서 하는 커리큘럼이 안정적이라면 개원가의 커리큘럼은 유동적이면서 액티브하고 빨리 변화할 수 있는 순발력을 가지고 있다.

고은이치과 유영준 원장은 “대학의 특성과 개원가의 특성이 틀리므로 경쟁적이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연수회에 참여하는 치과의사는 대부분 개원을 하고 환자를 접하면서 다소 고심하게 되는 30대 전후이다. 40대만 해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가격의 경우에는 단기코스의 경우 몇십만원부터 장기코스는 몇백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개인 연수회를 주도하는 사람은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이 주류를 이룬다. 30대와 40대 세대는 지금의 세대와 비교해 어떤 특징적인 것으로 규정지을 수 있을까?

치예원의 김성오 원장은 ‘일하는 근성이 뛰어난 세대’라는 표현을 쓰고 수석치과 조영환 원장은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세대’라는 표현을 쓴다.

수석치과 조영환 원장은 “제가 연수회를 하는 것은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빨리 후배에게 배포시켜 한국의 치과계를 한단계 더 끌어올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어서 어렵습니다.”라고 말한다.

사실 개인이 하는 연수회는 대학이나 학회에서 하는 것보다 규모면에서나 조직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경향을 계속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희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개인이 돈을 위해서 연수회를 하든지 명예를 위해 연수회를 한다고 하기도 하지만 연수회가 갖는 긍

정적인 면을 묵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치과 길라잡이 필요해

연수회가 많이 생기다 보니 제도적으로 모순되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다.

한 예로 보수교육 문제. 고석훈 미치과 원장은 같은 강사가 학회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보수교육으로 인정이 되고 연수회에서 하게 되면 보수교육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말한다.

학계의 강사와 개원가 강사가 존재하는 미국의 경우, 규정된 강사의 조건을 충족하고 전통적인 연구회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보수교육을 인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각 일반대학들도 학점은행계를 도입하고 타학교에서 받은 학점을 인정하는 등 효율적이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취하고 있는데 치협에서도 이러한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서울시 영등포구 김진태 원장은 평균 수준의 치과의료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백서로서 치과길라잡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물론 자신의 선택으로 임상강좌를 듣고 자신의 환자에게 임상적용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겠으나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져야 할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에 대한 지침을 어디에선가가 제공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관점이다.

이런 길라잡이는 각종 연수회에 대한 어지러움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규정도 이에 대한 방법론도 아직은 뚜렷한 것이 없다.



연수회 범람으로 혼동을 겪는 치과의사도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치과 길라잡이를 마련해 각종 연수회에 대한 혼동을 해소하기를 바란다. (상기 연수회는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

## 지나친 상행위, 술식에 치우친 세미나 지양해야

공통의 목표를 가진 치과 의사가 학문 증진을 위해 연수회를 개최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인데 일부에서는 개인 연수회가 동료 치과 의사를 술식에 이용한다든지, 유명해지기 위해서라든지, 사집단화한다는 의견도 있다.

바람직한 연수회가 되기 위해 연수회의 교육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는 하나 술식이라 해도 소개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보다는 기초 지식, 치료 원리, 임상 적용 시 치료 계획 및 전략에 대한 연수회, 즉 치과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데 소프트웨어를 줄 수 있는 연수회를 제공해야 한다.

미치과 고석훈 원장은 “연수회가 우후죽순격으로 무질서하게 되면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지적, 가르치는 사람의 책임감을 강조하고 “충실한 학술 프로그램 준비로 환자 진료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임프란트의 경우 △ 생물학적 기초 연구를 통한 생체친화성이 있어야 하며 △ 최소 5년 이상 장기 임상 관찰 보고 있어야 하고 △ 공인된 학술지에 기초나 임상과 관련된 결과들이 발표된 논문이 있으면서 계속되는 연구 시스템이어야 시술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연수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모원장의 경우 어떤 새로운 임상을 접하게 되면 나름대로 그 임상이 효과적인지 아닌지 판단할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경우 long term evaluation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며 스스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한다.

오래된 검증과 관련, 미치과 고석훈 원장은 “한편에서는 오랜 검증을 거친 long term evaluation이 긍정 평가를 받고 있고 또한 그것이 안전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오울드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한 임상도 강조돼야 합니다. 소수에 의한 것이 아닌, 임상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는 것이라면 세계적 학자나



연수회가 많다보니 연수의 중독증, 세미나 탁터 등의 신조어가 등장, 현재 세태를 반영해 준다.

임상가가 인정하는 것을 시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쟁 속에서 발전이 이루어지듯이, 보수와 개혁에는 갈등도 있지만 그 안에서 살아남는 올바른 결과는 인정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미치과 고석훈 원장은 “21세기의 개원가 치과계가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개원가처럼 활기차게 성장할 수도 있고 과거에 비해 어두운 면을 가진 일본처럼 지금보다 어두운 개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학문적 열기가 오르는 것은 르네상스를 맞는 과도기적 현상으로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 활용하면 어느 의료인보다도 열심히 해서 환자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연수회도 결국 좋은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일각에서는 연수회에 대해 제도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런 것에 제재를 가할 어떤 규제 방법도 없으며 또한 공부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개원의를 막을 수도 없는 일이다. 개원의의 특성이 임상과 경영에 있다면 대학의 특성은 임상과 연구에 있다. 공통된 부분인 임상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고 도와주며 서로의 특성을 인정해주면서 연수회를 통한 학문적 발전을 기대한다.